

드라마·예능 종합무진 연기자 나인우

“라이징 스타? 믿기지 않아요”



‘1박2일’ 형님들 덕분에 꿀잼 촬영 입대 전 최대한 많은 작품에 도전 목표? ‘인사와 감사’ 변치 않는 것

“라이징스타요? 아직 체감이 안 돼요.”

나인우(나종찬·28)가 수줍게 웃었다. 겸손한 대답과 달리 그는 요즘 “TV 틀면 나온다”는 말을 들을 만큼 방송가를 종합 무진하고 있다. 지난달 24일과 4일 각각 종영한 JTBC ‘클리닝업’과 KBS 2TV ‘징크스의 연인’을 주연으로 이끌었고, 현재 방송 중인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를 통해서도 막내 겸 분위기 메이커로 나서고 있다.

까맣게 그을린 피부가 실내와 촬영장을 오가며 동분서주한 흔적이 엿보인다. 최근 서울 성동구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만난 그는 “그저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으로 달렸다”고 돌아섰다.

“주변에서 ‘잘됐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와 닿지는 않아요. 사실 아직도 TV에 나오는 제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걸요.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팬들과 시청자, 제작진을 생각하면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는 책임감만 들어요. 가끔 부담감이 커질 때면 사랑해 마지않는 기타를 연주하며 마음을 달래요. 하루 30분간 햇빛을 쏘이는 ‘광합성’도 빼놓지 않아요.”

연정호·김종민·문세윤·딘딘·

라비 등 ‘1박2일4’ 멤버들도 그의 든든한 응원군이다. 2월부터 프로그램에 합류한 나인우는 “외동으로 자라서인지 형들이 생겨 정말 신난다”고 말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이라 뭐든지 빠르게 돌아가는 예능 촬영현장이 처음엔 쉽지않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형들이 ‘힘들지?’ 하며 조언을 쏟아냈죠. 덕분에 진심으로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어요. 요즘엔 다들 제가 나오는 드라마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불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곤 해요. 그러면서 ‘저기서는 멀쩡한데 우리 앞에선 왜 그래?’ 하고 매일 놀려요. 하하하!”

1994년생인 그는 군 복무를 앞두고 있다. 정확한 입대 시기가 정해지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작품을 촬영해놓을 생각”이다. 벌써 영화 ‘동감’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군 복무가)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저 또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요. 지금의 모습을 많이 남겼다가 전역 후에 또 다른 얼굴로 ‘짠!’ 나타나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다양한 역할에 대한 욕심도 큰 편이에요. 언젠가는 영화 ‘해바라기’의 김래원 선배님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작품을 꼭 하고 싶어요.”

다만 “인사 잘하기”와 “항상 감사하며 살기”, 두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데뷔 초부터 지켜왔던 신조예요. 인사는 첫 단추이고, 감사는 마지막 인사잖아요. 그 사이의 과정은 제가 만들어 가야죠.”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드라마와 예능을 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배우 나인우가 “아직도 TV에 나오는 내가 신기하다”며 웃었다.

사진제공 1 큐브엔터테인먼트

‘마녀사냥’ 신동엽 “음지서만 나뉘었던 MZ세대 연애 다룰 것”

티빙 오리지널 예능 8부작 공개 “자극적 스토리? 실제 사연들”

“MZ세대들 ‘요즘 연애’ 말하고 싶었죠.”

2013년 연애와 성(性)에 대해 화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시청자의 마음에 ‘그린라이트’를 켜던 ‘마녀사냥’이 8부작 티빙 오리지널 예능으로 돌아온다. 5일부터 공개되는 ‘마녀사냥2020’은 연애 관련 예능이 쏟아지는 ‘연애 예능 춘추전국 시대’에 ‘원조’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원조 ‘마녀사냥’을 함께 했던 흥인기PD와 신동엽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시청자의 사연을 중심으로 한 연애 토크 소리는 큰 틀은 유지하되 자유로운 OTT



티빙 오리지널 ‘마녀사냥2020’의 MC로 나선 코드 쿤스트, 김이나, 비비, 신동엽(왼쪽부터). 사진제공 | 티빙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플랫폼을 옮긴 만큼 보다 과감하고 대담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MZ세대의 진짜 연애”에 초점을 맞춰 “음지에서만 나뉘었던 이야기”를 “양지로” 끄집어 낼 예정이다.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신동엽은 “MZ세대와 이전 세대의 연애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예전 세대가 ‘관심 있는 이성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나요?’, ‘어떻게 썸을 타야 하나요’ 정도의 질문을 했다면 지금 세대들은 ‘잠자리하고 나서 안 사귀어도 되나요’부터 묻는다. 이게 현실이다. 회피해야 할 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연애, 철학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자극을 위한 자극”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일부로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연들을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것뿐이다. 오히려 착한 자극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신동엽과 함께 작사가 김이나, 가수 코

드 쿤스트, 비비가 MC로 호흡을 맞춘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이 모인 만큼 보다 풍성한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다. 멤버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흥인기 PD는 “김이나는 신동엽과 자원을 거꾸면서 ‘섹드립’(성적 농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신동엽과의 시너지가 굉장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코드 쿤스트는 남다른 연애 철학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케치하는 못하는 부분을 케치하는 능력까지 탁월하다”면서 “비비야말로 요즘 세대의 달라진 연애상을 솔직하면서도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의 보물”이라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One pick

업 앤 다운



뉴진스, 데뷔전부터 기록 행진 ‘민희진 표 걸그룹’ 이름값 증명

데뷔하기 전에 각종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걸그룹이 있다. 8일 데뷔 음반 ‘뉴진스’를 내놓고 가요계에 첫발을 내딛는 5인조 뉴진스(NewJeans·사진).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 어도어에서 처음 론칭하는 걸그룹이다. 과거 SM엔터테인먼트에서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와 브랜딩을 맡아 가요계에 이름을 알린 민희진 대표가 데뷔 과정을 총괄해 ‘민희진 표 걸그룹’으로도 유명하다.

이들은 기대만큼이나 데뷔 초반부터 이례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3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데뷔 음반 타이틀곡 중 하나인 ‘어텐션’(Attention)이 한국 스포티파이 ‘일단 톱 송’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하이프 보이’(Hype Boy)가 2위, ‘쿠키’(Cookie)가 5위, ‘허트’(Hurt)가 11위를 차지하면서 음반에 담긴 4곡 모두 차트 상위권에 들었다.

앞서 ‘뉴진스’는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44만 장 넘게 판매되며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초동 판매량(음반 발매 후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다. 기존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최대 초동 판매량은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인 소스뮤직의 걸그룹 르세라핌이 음반 ‘피어리스’(FEARLESS)로 세운 약 30만 7000장이었다.

뉴진스는 데뷔를 앞두고 멤버 소개나 그룹 콘셉트를 공개하는 가요계 관행을 깨고 지난달 22일 자정께 ‘어텐션’ 뮤직비디오를 먼저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당시 민대표는 “대중음악은 일상과 초근접해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매일 입는 옷과 같다”며 “뉴진스에는 매일 찾게 되고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는 진(Jean)처럼 시대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포부와 ‘뉴진스’(New Genes)가 되겠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 개인 사업가와 10월 결혼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 고우리(사진)가 10월 3일 서울 서초구 모차에서 5살 연상의 개인 사업가와 결혼한다. 4일 소속사 이미지나인웍스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연인으로 함께 하는 시간 동안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 50여명만 초대해 비공개 스몰 웨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09년 레인보우로 데뷔한 고우리는 그룹 해체 후 배우로 전향해 ‘하나뿐인 내편’, ‘안녕? 나야!’ 등에 출연했다.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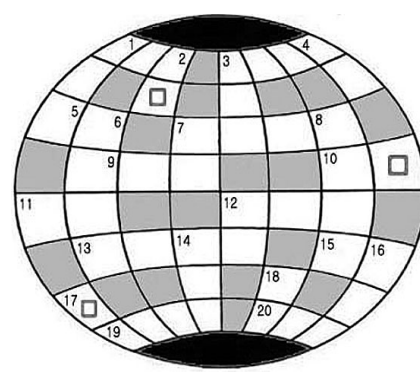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5		8	4				
		9				4		5
	7			9	3			
		2	7		4			3
6	4	1				8	7	9
7			9		6	2		
			4	3			6	
4		7				3		
				6	9		4	

■ 스도쿠정답

1	6	8	9	1	8	2	5	7
2	9	5	1	8	7	4	6	3
3	7	1	2	8	6	9	3	4
4	8	9	7	1	2	5	3	6
5	3	2	6	1	7	9	4	8
6	2	4	3	5	9	1	8	7
7	1	3	4	2	5	6	7	9
8	2	1	6	4	3	7	9	5
9	5	7	1	8	9	2	4	6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 물속에서 사는 동물, 특히 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03. 교통 법규상 제한되어 있는 속도를 넘는 속력을 내는 일 05. 마주 대해 이야기함. 또는 그 이야기 07. 몹시 애매하게 기다림 09. 상황에 따라 재빠르게 움직이거

나 대처하는 능력 10. 뿔나무의 열매 11. 막아서 거처적거림 12. 나사 모양으로 되어 늘고 주는 탄력이 있는 쇠, 스프링 13.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함 15. 물건을 모아 간수함 19. 무사(武士). “싸오아오” 20. 편히 쉬는 곳.

■ 세로 열쇠

01. 열대와 온대의 중간 지대 02.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03. 남을 속이는 짓, 또는 그런 술수 04. 순종하지 않고 저항함 06.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부드러운 기운(氣運)이 넘쳐 흐름을 이르는 말 07. 학문의 실력, 학문을 쌓은 정도 08. 크게 깨달아서 번뇌(煩惱)·미망(迷妄)이 없어짐. “오오저” 12. 웅맹스러운 장수 14. 경축하

거나 조문하는 데에 드는 비용 16.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맞은 아내. ‘오가오’ 17. 기분이 좋거나 일이 잘풀릴때 쓰는 말 18.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공간을 이어놓으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